

돌아온 2025 순천비어페스타! 청춘의 여름밤 흥 축제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빅 이벤트...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여름밤, 도심 속 광장이 청춘의 흥으로 물든다. 순천시가 주관하는 '2025 순천 비어페스타'가 오는 6월 14일 오전 그린 광장에서 개최된다.

작년, 청춘여행길잡이와 공동 기획으로 처음 선보인 순천 비어페스타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도심형 여름 축제의 싹을 강자로 떠올랐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돌아와, 무더위 속 오전 그린 광장을 시민의 거실이자 여름밤 낭만의 무대로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는 6월 14일 오후 5시부터 오전그린광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먼저, 19세 성인 인증을 마친 사람들이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지역 수제 맥주 부스가 운영된다. 부스에서는 맥주 판매뿐만 아니라 시음 행사, 비어 톨렛 돌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EDM 파티, 라이브 공연, 이색 체험 부스, 영화상영 등이 이어진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들로 한 여름 밤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지역 상권인 오전 상가 변영회와 연계를 강화해 치킨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치킨·피자·족발 등)들을 배달비를 뺀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직접 전화 주문 진행 시 배달비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배달 어플 주문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SNS 챌린지 100'을 통해 사전 참가자 모집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참가자는 총 100팀을 모집하며, 선정된 100팀에게는 돗자리와 치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및 순천관광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 비어페스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만드는 도시형 문화 콘텐츠로 성장 중이다"며, "앞으로도 순천을 대표하는 여름

2025. 6. 14.(토) 17:00
오전그린광장 일원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성인 기자



깊은 맛과 포슬한 식감, 보성군 봄 햇감자 본격 수확 해풍 맛고 자란 명품 '보성 감자' 전국 소비자 사로잡는다

대한민국 대표 감자 주산지, 전라남도 보성군이 자랑하는 '봄 햇감자'가 본격 수확 철에 들어섰다.

해풍을 맞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보성 감자'는 깊은 맛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프리미엄 감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초봄 낮은 기온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돼 예년보다 약 10일 늦은 5월 하순부터 수확이 시작됐지만, 맛과 품질은 오히려 더욱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군은 1,000여 농가가 920헥타르(ha)에 달하는 재배 면적에서 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예상 생산량은 약 1만 5,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 감자의 경쟁력은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의 고품종 씨감자에서 시작된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생산·보급하는 고품질 씨감자는 병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뛰어나,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대표 품종인 '추백'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인 '금선', 가공용 계약재배 감자'대서', 간식용으로 사랑받는 '수미'까지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점도 보성 감자만의 강점이다.

특히, 득량·회천 지역은 해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보성 감자는 전분 함량이 높고 조직감이 탁월하며, 포슬포슬한 식감과 은은한 짭짤함을 자랑한다. 무기질도 풍부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보성군은 수확된 감자를 도매시장뿐 아니라 보성군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몰'(www.boseongmall.co.kr)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씨감자 보급과 병해충 방제, 재배 기술 교육, 현장 품평회 등을 통해 감자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시기후에도 강한 신품종 개발과 친환경 재배 확대를 통해 '보성 감자'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겠다."라고 밝혔다.

보성/김운기 기자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아름다운 길 만들기' 추진

구례군 마산면이 화엄사로 일대 도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화엄사로로는 국도 19호선에서 천년고찰 화엄사까지 이어지는 약 4km 구간으로, 마산면 주민의 주요 통행로이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광로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 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잡풀과 넝쿨, 고사한 장미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마산면은 연초부터 화엄사로 아름다운 길 만들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월에는 국도 19호선에서 화엄가든까지 구간의 잡풀과 넝쿨을 정비하고, 홍가시나무를 식재해 도로 경관을 개선했다.

5월에는 면사무소에서 스테이 지리산 아침'까지 구간에 장미를 새로 심고, 고사한 장미는 보식했다.

6월에는 장미 보호를 위해 지주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이맘때에는 해당 구간이 붉은 장미꽃으로 장관을 이룰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리치빌라~청마관 사이에 금계국을 추가 식재하고,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변 유휴지에 쓰레기 집



의장을 설치해 적정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산면 관계자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마산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

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성군, 하절기 군민 건강 24시간 지킨다

감염병 대비 비상방역체계 가동... 코로나19 확산세 예의 주시

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로 질병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비브리오패혈증 등 여름철 주요 감염병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어패류를 취급하는 식품점·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와 점검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주민 교육

도 실시한다. 농사 등 실외작업이 많은 군민이나 고령주민을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다. 응급의료기관인 장성병원과 협력해 예방·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한다.

코로나19 재유행도 대비하고 있다. 최

근 중국,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감염취약시설 확인, 예방수칙 홍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대상은 △65세 이상 주민(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면역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4세 이하, 항암치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보건소 또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일상속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나주시보건소는 '1305 건강걷기 챌린지' 2기를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운영 기간 누적 20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하루 최대 1만5천보까지 인정된다.

나주시, 일상 속 걷기 '1305 건강걷기 챌린지' 2기 운영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26일부터 모바일 걸을 수 측정 앱 '워크온(WalkOn)'을 통해 참여 예약을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챌린지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만 보 걷기를 완료한 사람은 '워크온' 앱 내 응모하기를 완료해야 한다.

챌린지 종료 후에는 응모 완료자 중 425명을 추첨해 모바일 나주시상품권(1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지급은 7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 회차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

히 사전, 사후 걷기 실천율 조사 분석에서 15% 이상의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 증진과 더불어 즐거운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챌린지를 운영 중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암군, 제21대 대선 대비 사전·본투표소 점검 완료

영암군민 등 안전한 투표 위해 총 37개 투표소 꼼꼼히 확인

영암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표를 하루 앞둔 28일,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 11개소와 본투표소 26개소 점검을 마쳤다. 사전투표일인 5/29~30일, 본투표일인 6/3일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선관위와 함께 시설 안전, 동선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한 것. 특히, 긴급 상황 발생 대응 체계 구축, 구제역 확산 방지 예방 조치 점검도 병행해 영암군민 등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11개 읍·면의 사전투표소는 '△영암읍-영암군민회관 △삼호읍-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덕진면-덕진면사회단체회관 △금정면-금정면사회단체연합회관 △신북면-신북면농업인상담소 △시종면-시종면사회단체회관 △도포면-(사)한국농업경영인도포면협의회 △군서면-군서면농업인상담소 △서호면-서호면건강증진센터 △학산면-학산면농업인상담소 △미암면-미암면사회단체연합회관'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